

‘혜자카드 단종’ 혜택은 줄이고 자금조달 창구 다변화 ‘투트랙’

‘카드사’ 활로 모색

여전채 금리 연 3.48% 상승세
카드사 8곳, 작년 525종 발급중단
2022년 101종 대비 5배 넘는 수치
‘김치본드’ 등 외화표시 채권 발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여전채 금리가 상승하자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과 조달 구조 개선이란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마케팅을 줄이고 혜택 좋은 카드(혜자카드)를 단종하며 내실을 다지는 한편, 외화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창구 다변화에 나섰다.

9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여전채(AA+/3년물) 금리는 연 3.48% 수준이다.

앞서 여전채 금리는 레고랜드 사태 직후인 지난 2023년 초 5%대까지 치솟다가 지난해 1분기 2%대로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3%대로 진입, 올해 초 3%대 중반까지 다시 올라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채 금리 상승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결과다. 지난달 15일 한은은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부



주요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대신 내실을 꾀하고 있다. 서울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터 올해 1월 사이 총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점이 여전채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실제 금통위가 열린 지난달 15일 이후 여전채 금리는 16일 3.440%에서 19일 3.485%, 20일 3.538%로 연일 상승폭을 키웠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 시장 금리에 즉각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조달 비용 부담을 느낀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은 올해 본업에 집중하는 내실 경영 기조를 택했다. 공격적인 신사업 확장을 통해 외형 성장에 나서기보다는 비용 절감, 수익 구조 안정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이벤트 혜택을 줄

이는가 하면 가격 대비 성능을 극대화한 ‘혜자카드’를 단종하고 나섰다. 무이자 할부 개월 수를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고, ‘MG+하나카드’ 등 인기 있는 알짜 카드 발급을 중단하면서 비용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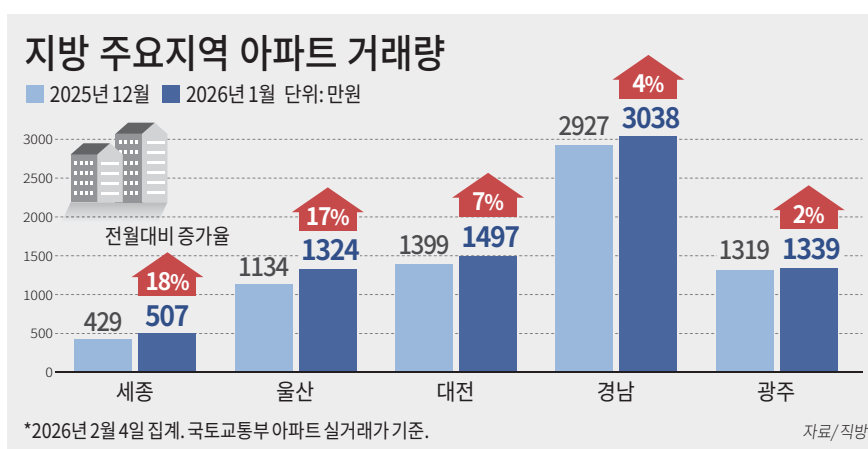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이 지난해 발급을 중단한 카드는 총 525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1종에 달했던 발급 중단 카드 수와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치다.

비용 절감 대신 자금 조달 채널 다각화에 나선 곳도 있다. 현대카드는 최근 15년 만에 2000만 달러, 약 294억원 규모의 김치본드를 발행했다. 김치본드는 국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이다.

자금 조달의 70% 이상을 여전채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조달 창구를 다변화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김치본드 발행으로 자금 조달 채널을 더욱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외에도 해외 달러 화표시채권, 신디케이트론,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외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조달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세종·울산 등 지방 아파트 거래량 확대

1월 세종시 거래량 507건 18% ↑
울산 17%, 대전 7% 등 증가세

올해 들어 세종시와 울산시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계약 일 기준 세종시는 1월 거래량이 507건으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울산도 1324건으로 전월 대비 17% 늘었다. 대전 1497건(7% ↑), 경남 3038건(4% ↑), 광주 1339건(2% ↑) 등이다.

직방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 아파트 거래량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며 “아직 1월 거래의 추가 신고가 2월 중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집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소폭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 증가에 비해 가격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움직였다.

세종시의 1월 중위가격은 5억3300만원에서 5억 9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고, 평균가격은 5억4000만원대를 유지했다.

울산 역시 거래는 늘었지만 중위가격은 3억원대 초반, 평균가격은 3억원대 중반을 유지했다.

직방 관계자는 “지방 일부 지역의 거래량 반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방 시장의 경우 그간 공급 부담과 지역 경제 여건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돼 왔던 만큼 기저효과이거나 연말로 이연됐던 계약이 1월에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작년 12월 4733건에서 1월 3228건으로 32% 감소했다. 경기도 1만 1558건, 인천 2301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씩 줄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중·저신용자에도 후불교통·신용카드 발급

금융위, 채무조정 차주 대상
‘재기 지원 카드’ 2종 출시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중·저신용자를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를 활용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오는 3월 23일부터 도입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오는 20일 출시되며,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중·저신용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두 상품은 작년 12월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예고된 상품으로, 채무조정 이후 이를 성실히 이행중인 중·저신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채무조정자가 체크카드를 통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한도가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후 성실 상황이 지속될 경



/금융위원회

우 신용평가를 통한 일반 체크카드 결제도 허용한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 중에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이전까지 후불 교통카드 이용이 불가능했다. 공공정보 삭제를 위해선 통상 1년 이상의 성실상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신정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더라도 연체가 없다면 각 카드사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삼성웰넷 등 모바일 환경에서는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오는 3월 23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연체나 채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소액부터 상환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체가 없고, 가처분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금원 보증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채무조정 중에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이다.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카드(200~300만원 한도)보다 증액됐다.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 결제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출시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3만 4000명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신한은행, 땡겨요서 피자 1만3000원 할인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
서울시-피자 브랜드 7개사 협업

신한은행은 오는 15일까지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서울시 및 주요 피자 브랜드 7개사와 협업해 외식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서울시의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땡겨요는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의 단독 운영사로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가맹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고객은 피자 브랜드 7개사(▲도미노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 ▲피자알블로 ▲피자에땅 ▲피자헛 ▲7번가피자)의 자체 할인 혜택에 더해, 땡겨요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배달+’ 전용 할인 쿠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13,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땡겨요는 기존 배달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곳과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정 더 간간해 진다

국토부, 체류자격·주소 등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해야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자격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원래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에 신고할 내용으로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은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불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